



보도 일시	2023. 2. 23.(목) 11:00 < 2.24.(금) 조간 >	배포 일시	2023. 2. 23.(목)
담당 부서	투자정책관 투자정책과	책임자	과장 최영수 (044-203-4070)
		담당자	서기관 박수정 (044-203-4071) 사무관 정종윤 (044-203-4072)

첨단산업 중심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를 위한 「2023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」 발표 및 규제환경 개선 적극 추진

-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간담회 개최 -
- 첨단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현금·입지 지원 등 혜택 강화 -
- 규제혁신, 외투기업 고충처리 등 외국인 투자환경 지속 개선 -
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는 2.23.(목) 서울 롯데호텔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‘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간담회’를 개최하고,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를 강화하기 위한 「2023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」을 발표하였다.
-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, 유럽, 일본, 중국 등 주한외국상의 및 협회 대표, 외투기업인 등 외투업계 관계자 15명과 정부 및 투자유치기관(KOTRA) 관계자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.

< ‘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간담회’ 개요 >

- 일시/장소 : '23.2.23.(목) 15:00 - 16:30 / 롯데호텔 아스토스 스위트(36층)
- 참석 : 정부, 투자유치기관, 외투업계 관계자 등 25명
 - * ▲(정부)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, 관계부처 ▲(투자유치기관) KOTRA IK대표, 외국인투자음부즈만, ▲(업계) 외투기업 대표 7명, 주요국 주한상의 7개소 및 외국기업협회 대표
- 행사구성 : ① '23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발표, ② 외투기업 규제개선 성과 및 사례 발표, ③ 의견수렴(정책제언, 규제개선과제 등 애로사항)

[2023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]

□ (외투실적)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는 세계 경제성장 둔화, 하반기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위축에도, 튼튼한 제조업 기반과 제도개선 등에 힘입어 사상 첫 300억불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였다.

* (금액) 신고 304.5억불(전년比 +3.2%), 도착 180.3억불(△3.1%) 기록
(건수) 신고 3,463건(+12.1%), 도착 2,325건(+12.4%)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

○ 제조업·그린필드형·비수도권 투자가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며, 국내 산업 기반 고도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.

* 제조업 투자(신고, 억불) : ('19) 82.2 → ('20) 59.7 → ('21) 50.0 → ('22) 124.8

* 그린필드 : M&A 투자 비중(%) : ('21) 61.3 : 38.7 → ('22) 73.3 : 26.7

* 비수도권의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(+209.4%), 역대 최초 100억불 돌파

□ (2023년 외국인투자 정책방향) 산업통상자원부는 ‘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강화’를 목표로 제시하고 3대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.

① (외국인투자유치 지원 및 제도개선) 첨단산업·공급망 핵심 분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정·입지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, 외투기업 고용 및 연구 개발(R&D) 투자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.

○ 공장 신·증설이 없는 첨단산업 전환형 투자도 현금지원 대상에 포함 되도록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, 현금지원 신청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.

○ 또한,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입지 지원을 위하여 외투지역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첨단투자지구 신규 지정 및 인센티브 확충 추진한다.

○ 수요자 맞춤형 채용지원사업 및 외투기업 연구 개발(R&D)투자 촉진 지원방안 마련 추진 등 외투기업의 고용과 연구 개발(R&D) 투자 확대를 지원한다.

② (전략적 유치활동) 첨단·주력·미래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100대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.

- 국내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전담팀 구성 및 지역별 전략산업 유치 지원 등 유치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한다.
 - 수출통계, 경영정보 등 데이터에 기반하여 잠재투자가를 발굴하고, 온라인 매칭 플랫폼을 통해 투자유치활동을 효율화한다.
 -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우리의 산업경쟁력 및 투자 강점을 적극 홍보하여 잠재 투자가 유입 확대를 유도한다.
- ③ (투자환경 개선) 외투기업 간담회 정례화 등 소통을 강화하고 옴부즈만,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규제개선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.
- 정부는 지난해 간담회(13회), 설문조사(5,600개사)를 실시하여 외투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「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」을 마련하여 40개 규제 개선방안 발표('22.12)하였다.
 - * '2022.12.8. 산업부 보도자료 참고
 - 이후에도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여 34개 과제에 대해 추가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
 - 규제개선 노력과 함께, 외국인투자 종합가이드 발간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, 법령 영문화 및 지자체 입법정보 제공 등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, IK(투자유치)·종합행정지원센터(원스톱서비스)·옴부즈만(고충처리) 등 외국인투자유치·지원기관의 역량 제고와 기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- ④ (규제개선 및 애로해소)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외국상의, 외투기업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은 노동·인증 등 규제 완화와 현금·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.

< 외투업계 주요 건의사항 >

- (A상의) 주 52시간제에 대한 유연성 부여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외투기업들의 우려가 커다며, 노동분야 규제 완화 필요성을 건의
- (B상의) 화장품 분야 국내 인증제도와 국제 인증제도 간의 조화 건의
- (C사) 글로벌 기업에 대한 각국의 투자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,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, 입지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를 요청

-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“한국을 믿고 투자한 외투기업들의 원활한 국내 경영 활동을 지원할 뿐 아니라 국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, 지원제도와 투자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” 고 강조하면서,
- 특히, 각국의 주한상과의 외투기업인들이 제안한 정책과 규제개선을 위해 “관계부처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” 임을 밝혔다.

【붙임】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간담회 개요



□ **개최 배경**

- 미·EU·일·중 등 주요국 상의, 외투기업과 직접 소통을 통한 투자애로 해소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

□ **회의 개요**

- (일시·장소) 2.23(목), 15:00~16:30(90분) / 롯데호텔 아스토스 스위트(36층)
- (참석자) 통상교섭본부장, 주한외국상의 대표 등 25명
 - (정부) 통상교섭본부장, 투자정책과장, 건의사항 소관부처
 - (외투업계) 미국·유럽(ECCK, 獨, 佛, 英)·일본·중국 상의 대표, 외국기업협회 회장, 외투기업 대표 등 15명
 - (유관기관)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, 김태형 IK 대표
- (주요내용) ①외국인투자 촉진시책 발표, ②규제개선 성과·사례 발표, ③외투기업 건의사항 수렴 및 자유토론

□ **진행 순서** (한영 동시통역 / (사회) KOTRA 고충처리실 박금란 과장)

시간	세부내용	비 고
15:00-15:03(03')	개회 및 기념촬영	참석자 전원
15:03-15:08(05')	모두발언	통상교섭본부장
15:08-15:23(15')	'23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주요내용 발표	산업부
15:23-15:38(15')	'22년 외투기업 규제개선 성과·사례 발표	옴부즈만실
15:38-16:27(50')	외투기업 건의사항 수렴 및 자유토론	참석자 전원
16:27-16:30(03')	마무리발언	통상교섭본부장

* 모두발언까지 기자단 공개